



가천길재단
Gachon Gil Foundation

가천대학교

하와이캠퍼스

AI학과 / 배터리학과

창업대학 '코코네스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가천대 길병원

국가지정 지역암센터평가 종합 1위

최상의 심뇌혈관센터

세계 뇌과학 연구 선도(11.74T MRI 개발)

꿈의 중성자 암치료기(임상시작)



국내 최초 길병원 닥터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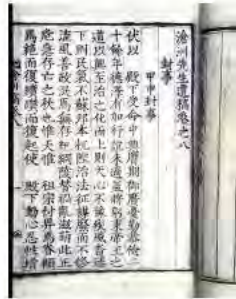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3 Vol. 150 여름

茶文化



한 잔의 차 속에는 삼라만상이 들어 있다



김익희-창주유고집

전다법(煎茶法)에 대해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무릇 차는 산불에 달이니 산불은 숯불에 불기운 많은 것을 가리킨다. 마땅히 탕(湯)을 만들며 비(沸)를 안 하면 가히 차를 만든다고 할 것이다. 비는 탕보다 여러 번 끓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선 눈(魚目)같이 방울이 생겨서 조금 소리가 나다가 중간에는 네 편으로 샘솟듯 하다가 차차 구슬같이 되고 나중에는 물결이 뛰고(騰波鼓浪) 물 기운이 온통 사라지는 것을 노양(老陽)이라 이른다.” 조선의 문인들은 차에 대해 많은 시를 남겼다. 그중에서 김익희(金益熙, 1610~1656)는 전다법에 대해서 다수의 시를 남겼다. 우선 소식의 ‘전다’ 시에 차 운하어의 시를 살펴보면,

계곡 물로 관아에서 뉘은 진귀한 차 달이려 / 새벽에 새로 길어 오니 샘물이 맑구나.
맑은 달은 둥글어 옥 맺들로 갈고 / 무지개는 막 피어 은병에 쌓이네.
까마귀머리 넣으니 열은 향이 나고 / 게 눈이 끓어오르니 가느다란 소리 난다.
마른 창자 축축이 적시고 잠 못 이루니 / 산성에서 아스라이 거울 북소리 듣는다.

시 전체에서 차를 끓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관아에서 직접 뉘은 진귀한 차를 끓이려고 샘물을 길어 오는 모습이 흥분되고 가슴 벅차 보인다. 차를 끓이기 위해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은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차향이 피지며 흥분은 절정에 이른다. 이어서 어묵과 등과고랑의 격렬한 물 끓임이 지난 다음에는 진귀하고 향기로운 차가 완성된다. 긴 기다림 끝에 마른 창자에 축축한 차향이 가득하니 이 또한 신선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라는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차시이다. 김익희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척화론자(斥和論者)로서 화의를 반대하고,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가서 전쟁을 감독하는 어사(督戰御使)가 되었다. 문집에 《창주유고》가 있다. ❶

[표지 이야기]

4~5월은 차인들에게 있어 가장 바쁜 계절이다. 첫잎따기부터 건조까지 어는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차행사가 줄출이 몰려 있다. 협회도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모두가 바쁜 시기 한 발자국 뒤로 물러 서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 소식지

발행·편집인 최소연 | 편집장 고만송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사)규방다례보존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 F. 02) 719-78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10호

T. 032)468-3595 | F. 032)461-2350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 http://gyubangdarye.co.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gyubangdarye@naver.com

茶文化

2023 Vol. 150 여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젊은 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차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006 특집 1 제34회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 경연대회
- 028 특집 2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문화전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34 선조의 품격 |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
- 038 차의 성지 | 오대산 월정사 우통수
- 044 건강한 삶 | 원형탈모
- 046 협회 소식 | 스승의 날 / 3월 정기총회 / 이사장 면담 / 라비돌 시찰
규방다례 인정 10주년 축하
- 058 대학원 소식
- 066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72 찻잔 속 인생을 그리다

茶情茶感 • 찾았이 맺어준 인연

- 073 지부사랑방
경남지부 / 광주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순천지부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 095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 096 우송료 명단
- 097 공고



젊은 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차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0일 인천도호부관아에서 한국차문화협회와 규방다례보존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제34회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 경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회원 및 차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깃을 지닌 새들은 날고, 털을 지닌 짐승은 달리고, 사람은 입을 열어 말을 한다.’는 차의 날 선언문 첫 구절이 생각납니다. 1981년 5월 25일 이귀례 명예이사장을 비롯하여 차인 1세대가 주축이 되어 발표한 차의 날 선언문이 발표된 지 올해로 어느덧 43년이 되었습니다. 차의 날 선언문이 발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그 위상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차문화는 급성장하여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차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고차인들 뿐만 아니라 차와 관련된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 그 중에서도 협회 차인들과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 차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차문화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차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가와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국제 행사 참가 등을 통해 우리의 차문화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인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차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문화는 어느 한 단체나 차 생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문화는 삶의 보편적인 문제로 여러 사람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협회는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이수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행해온 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차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한 문화적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차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한국 차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협회에서 자격증만 취득하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차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인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이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차인여러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도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차문화를 사랑하고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여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제43회 차의 날 기념과 제34회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 경연대회 개최

주최 및 후원은 한국차문화협회,
규방다례보존회,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등

제43회 차의 날 기념 제34회 전국 차인큰잔치 행사와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 시상식이 지난 5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인천도호부관아(재현물)에서 (사)한국차문화협회와 (사)규방다례보존회 주최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장·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윤관석 국회의원,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최미리 가천대학교 수석부총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한국차문화협회 전국 지부장 및 차인 등 500여 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 (사)규방다례보존회 최소연 이사장 인사말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에 유서 깊은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제 34회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 경연대회는 '차의 날'을 기념하고, 차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차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뜻깊은 축제의 자리입니다. 또한 차음식 경연대회는 우리나라 차음식의 산실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최대의 차음식 경연대회입니다. 이렇듯 뜻깊은 자리에 국내외 차인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얼'이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 선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다양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란 모두에게 공감을 얻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談論)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차문화는 보편적 가치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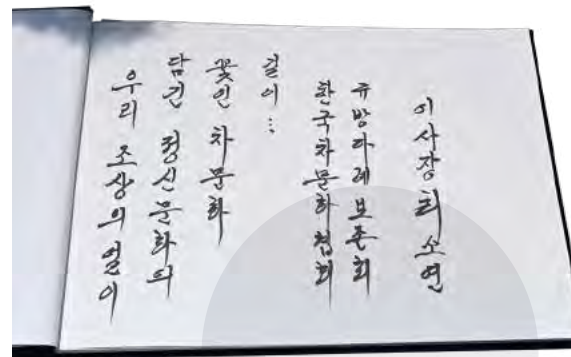
국내외 차인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 윤리 상실의 시대에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우리 사회를 변혁시킨다고 하여도 기계가 문화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차인 여러분! 문화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예(禮)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화는 '옳고 그름'이 없는 포용의 문화여야 합니다. 주장은 있되 독선이 없어야 하며, 비판은 있되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경쟁은 있되 배려하는 문화여야 합니다. 일찍이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차문화의 정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차인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승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로 34회가 되는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 경연대회는 우리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차인들의 잔치이자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열린 축제의 장입니다. 행사장 각 부스에서는 다양한 차를 음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음식 특별 전시장에는 우리 차를 이용한 다양한 차음식들이 출품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도 본 행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윤관석 국회의원님, 매년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천주 회장님과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차인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 / 가천길재단 회장 / 가천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이길여 축사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회 전국 차인 큰잔치 및 차음식 경연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시고 멀리 인천까지 와주신 전국의 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은 1300년 넘게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고유의 문화라고 자랑하는 다도(茶道)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은 변변한 다기(茶器)조차 없어서,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도공들을 납치하여, 그 수요를 메웠습니다. 그들이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 차문화가 커피나 청량음료에 밀리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40여년 전부터, 故 이귀례 이사장님과 함께, "차문화를 되살려 지키고 교육하는 것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한국 차문화 재건에 나섰습니다. 그분은 다구를 챙겨 들고 비무장지대에서 산



골 오지, 제주도 섬마을까지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외로 미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독일 등에 가서 '한국 차문화' 행사를 통해, 우리가 결코 일본 차(茶)의 아류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은 한국차문화협회의 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한국의 영화나 음악이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는 K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 차문화도 세계에 K컨텐츠로 새겨지고 글로벌하게 빛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 차인 큰잔치 행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차인큰잔치는 우리 전통 차문화를 올바르게 알리자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는 차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행사이다. 또한 차세대 차인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5월 9일과 5월 10일 전국 온라인 청소년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 심사를 통해 수상한 우승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전국 차문화협회 및 인천시민들과 함께 한 이번 차인큰잔치에서 가천대학생들의 선비다례 시연이 있었다. 선비다례 시연을 한 가천대학교 학생들은 전국 온라인 청소년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자들로 사대부의 품위와 절도가 느껴져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오후 1시에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한국차문화협회 국내외 27개 지부에서 온 회원들과 인천 시민들이 함께했다.

강정자 부회장의 지휘로 애국가 제창에 이어 선고차인에 대한 묵념, 선고차인 헌다례가 있었다. 선고차인 헌다례는 이수자 이림, 이수자 박경숙, 이수자 조정미가 해주었다.



내빈 소개가 끝난 다음,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는 그 나라의 ‘얼’이자 ‘정신’”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 선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21세기는 다양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란 모두에게 공감을 얻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談論)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차문화는 보편적 가치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한국의 차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했다.



제43회 차의날 기념 생활차다례 시연



선비다례 시연



가루차다례 시연



규방다례 시연





김천주 여성소비자연합회 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관석 국회의원



사회 : 전찬희 아나운서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차문화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귀례 명예 이사장님의 덕분이라며, 우리 차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 보급하는 데 한국차문화협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며, “한국의 차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차인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5월이면 전국 차인큰잔치가 기다려지고, 또 차음식이 기다려집니다.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차문화협회와 규방다례보존회의 노력으로 훌륭한 대회





를 치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차문화 보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한국 차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소연 이사장님과 이길여 명예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저도 국회에서 우리 차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회장은 “인성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차문화 인성교육입니다.”라면서 “이를 위해 인천시 재외동포청 내에 청소년 차문화교육 장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차음식 경연대회에서 기념 컷팅식을 가졌





2023.05.20

다. 행사장에는 차(茶)의 맛과 멋을 이용한 50여 점의 음식들이 출품돼 '전국 차 음식 전시 및 경연 대회'가 펼쳐졌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작품을 보고 심사를 하는 QR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더욱 높였다. 출품작 중 대상에는 경남지부 박은화 회원의 '감자와 연근의 속삭임'이 선정됐다. 오후 3시부터는 특별무대에서 선비다례, 생활다례, 가루차, 규방다례 시연이 있었다. 관람객들은 우리의 차문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모두가 좋아했다. 시연회가 끝난 후에는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내용은 한국차



2023.05.20

문화협회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문화전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가천대 박인홍 학생이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가천대총장, 보성군수, 하동군수, 규방다례보존회, 한국차문화협회 등),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도 주어졌다.
전국 차인큰잔치 차 문화행사인 만큼 행사장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했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차를 마실 수 있는 차 체험, 체험장 10곳을 방문하면 선물을 주는 코스 탐방 체험, 전통 만들기와 같은 전통문화체험이 무료로 진행됐다. 또한 인성 8덕목을 응용한 녹차와 황차, 가루차, 홍차, 냉차 등 아름다운 차 자리가 마련되어 보고 즐길 수 있는 차 시음회가 진행됐다. 또한 우리나라 차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한 선비다례 및 규방다례, 생활다례, 가루차행다례 시연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



영광의 차음식 경연대회 수상자들



2023.05.20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23.05.20

최우수상



2023.05.20

최우수상



2023.05.20

최우수상



2023.05.20

최우수상



2023.05.20

특별상



2023.05.20

장려상



2023.05.20

최우수상



2023.05.20

우수상



2023.05.20

가작



2023.05.20

입선



전국 차인큰잔치에 참석한 차문화협회 지부



강원지부



광주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경남지부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인천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차음식 경연대회 수상작



대상_경남지부_박은화



최우수상_대구경북1지부_이남정



최우수상_대구경북1지부_안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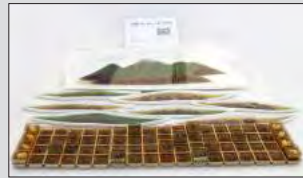
최우수상_경남지부_안선희



최우수상_서울제1지부_이석예



최우수상_대구경북1지부_김영희



우수상_순천지부_송예진



우수상_순천지부_김보아



우수상_서울제1지부_최정희



우수상_부산지부_최영희



우수상_순천지부_조혜숙



우수상_충북지부_김선경



우수상_서울제1지부_최진숙



특별상_전남지부_나혜영



특별상_전북지부_박현희



특별상_인천지부_김은숙



특별상_순천지부_이미란



특별상_인천지부_김순옥



특별상_전남지부_박숙희



가작_아산지부_황유지



가작_경남지부_이서영



가작_충북지부_허윤숙



가작_서울제2지부_류소영



가작_충북지부_박은숙



장려상_인천지부_이윤희



장려상_전남지부_옥원주



장려상_경남지부_이서영



장려상_서울제2지부_최유리



장려상_순천지부_송예진



입선_강원지부_김복순



입선_서울제1지부_이기분



입선_강원지부_박정자



입선_인천지부_차애숙



입선_순천지부_주혜란



입선_전남지부_오옥순



입선_강원지부_공지숙



입선_서울제2지부_장효순



입선_충북지부_박현주



입선_충북지부_김신영



입선_서울제1지부_최정희



입선_충북지부_신승연



입선_강원지부_조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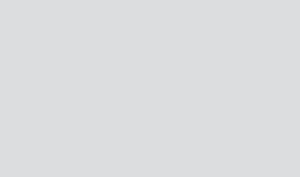
입선_서울제2지부_허유진



입선_충북지부_정미영



입선_전남지부_이정희



입선_부산지부_윤명희



입선_강원지부_윤석현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 개최

(사)한국차문화 협회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

예선과 결선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희망을 보다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가 지난 5월 9일과 10일 2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검토한 결과 이번 대회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성군, 하동군, (사)규방다례보존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 사상인 효(孝)와 예(禮), 지(智), 인(仁)의 정신을 길러주고,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치러지는 경연대회다. 청소년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열리며 올해 26회를 맞이하는 전국 최대의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이다.

협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7일까지 동영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27명의 결승 진출자를 선정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127명은 각 지부 예선을 거친 후 본선에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었다. 차예절경연대회는 유치부에서 대학부까지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하였다. 1차는 5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를 심사했다.

심사에 앞서 최소연 이사장(심사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지부에서 유치부를 비롯하여 대학부까지 교육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을 각 지부장 및 사범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가한 청소년들이 미래의 훌륭한 차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위



2023.05.09



2023.05.10



2023.05.10



2023.05.10

원님들께서는 기본예절, 절하기, 차내기를 비롯해 옷차림, 입·퇴장예절 등의 심사를 공정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경연대회는 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를 보급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출품한 모든 청소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5월 9일 심사를 맡아준 협회 심사위원으로는 최소연 심사위원장을 비롯하여 박광옥 심사위원, 인천지부의 이막동 이사, 이금숙 이사, 강희옥 감사와 광주지부의 노영숙 이사, 서울제2지부 문차남 이사, 류소영 이사, 장효순 이사가 심사를 맡아주었다. 박광옥 심사위원은 “유치부와 초등부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차문화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고사리손으로 차를 따르고 내는 모습이 먼 훗날 훌륭한 차인으로 성장할 재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지부에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친다면 훌륭한 차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심사를 보는 내내 행다를 하는 모습이 귀엽고 예뻐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미래의 차인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협회의 행다법을 계승하는 것이 대회의 본질

심사 2일째인 5월 10일에도 최소연 심사위원장과 박광옥 심사위원을 비롯하여 차영민 부회장, 김가영 부회장, 광주지부 박혜란 지부장, 인천지부 조영아 지부장, 인천지부 이명숙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 주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우리의 생활다례 및 선비다례는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는 행다법으로 과학적 동선까지 고려한 행다법입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행다를 해야 하는 데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부장님의 노력과 사범님들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차인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라며



전국 청소년차문화전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여 참여시킨 장안대 원종혜 교수(협회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 최소연 이사장

전체적인 총평을 말했다.

이틀간 치러진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의 심사를 마감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5월 12일(금) 홈페이지에 발표되었고, 시상상은 2023년 5월 20일 인천도호부에서 개최되었다. 시상 내역은 유치부, 초등부 A조에서는 수상자 총 17명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가천대총장)에는 이*을 만월초등학교 어린이가 수상했다. 초등부 B조에서는 총 20명이 수상하였으며 박*빈(가천대총장) 우석초등학교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등부에서는 총 18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으며, 나*희 고척중학교 학생이 최우수상(가천대총장) 상을 수상했고, 고등부에서는 총 18명이 수상했으며, 김*정 목동고등학교 학생이 최우수상(가천대총장)을 수상했다. 영광의 대상은 대학부에서 나왔다. 대학부 수상자는 총 5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박인홍 가천대학교 학생이 수상했다. ㉠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영광의 수상자들



대상



여름비, 차 한 잔

바람 한 점 없는 여름날이다. 따뜻한 녹차를 마시면 9분 후 우리 몸의 체온이 1℃ 내려간다는 실험보고가 생각나도 손과 눈은 생각과 달리 시원한 빙수, 청량음료를 찾고 있다. 여름 소나기 한줄기라도 시원하게 내리면 좋으련만.

비가 내리면
비 냄새가 좋고

그 비에 젖은
흙냄새가 좋고

비를 품은
바람 냄새가 좋고

생각나는
사람이있어서 좋고



박숙희
한문교육학 박사
협회 총복지부장

여름비의 특성을 간결히 표현한 정현재 시인의 『비가 내리면』을 읊조려본다. 바짝 메마른 땅에 여름비가 후드득후드득 내리면 흙바닥 위로 툭툭 기포가 일어나며 흙냄새가 훑 코끝을 지나간다. 뒤이어 어디선가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며 대지의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준다. 이런 시간 가만히 빗줄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사람이 생각난다. 따뜻한 차 한 잔 우려 마시며 그리운 추억을 그려본다. 인생의 기쁨과 평화가 어디 현상에서뿐이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마다 상상과 생각의 아름다움이 허다하다.

《도은선생시집(陶隱先生詩集)》에 실린 도은 이숭인의 『차 한 봉과 안화사 샘물 한 병을 삼봉(三峯)에게 드리며(茶一封并安和寺泉一瓶呈三峯)』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 속에 정성스럽게 차를 선물하는 즐거움이 짧은 시 한 수에 가득 담겨 있다.

崧山巖罅細泉縈	송산 바위틈새로 흐르는 한줄기 샘물
知自松根結處生	소나무 뿌리 얹힌 곳에서 솟아난다네
紗帽籠頭淸晝永	사모 쓰고 단정히 앉아 글공부에 지친 긴긴 대낮
好從石銚聽風聲	돌술에 이는 술바람 소리 들으며 차나 즐겨보게나

고려 도읍지에 있는 송악산(松嶽山)을 송나라 사신 서궁(徐兢)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송산(崧山)이라 표기하였다.

안화사는 고려전기에 창건된 개경 송악산 자하동에 있는 사찰로 그 샘물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하다. 송(宋)나라 휘종(徽宗)의 친필 편액이 있는 곳으로 단청과 구조가 당시 제일 아름답다고 하였다.

특히 돌길을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매우 아름답고, 사면으로 송백수(松栢樹)가 하늘에 닿았으며, 여름이라도 언제나 가을과 같았다고 한다.

이 시에는 이숭인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 차(茶)는 고려 시대에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만으로도 기쁜 선물이건만 거기에 안화사의 샘물 한 병을 보태어 보내니 더 이상의 선물이 있으랴.

초의선사는 『다신전(茶神傳)』에서, ‘차는 찻물의 정신이요 물은 찻물의 몸이다. 좋은 물이 아니면 차의 신묘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성으로 만든 차가 아니면 어떻게 좋은 찻물이 우러나겠는가(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 非眞水莫顯其神, 非精茶曷窺其體)’라며 물의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잘 우려낸 좋은 찻물은 좋은 물이 기본이다. 그래서 차 달이기에 알맞은 물을 선물하는 풍습이 예로부터 있어 왔다.

아끼던 차 한 봉과 함께 삼봉에게 선물하기 위해 최고의 물까지 챙기는 그의 따뜻한 마음. 안화사를 찾아 슬뿌리 얽힌 바위틈에서 솟아난 석간수(石間水)를 땀다. 물병의 물이 새지 않도록 여미는 도은의 손길이 눈에 선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유 속에 선물은 서로의 마음을 엮는 귀중한 매체이다. 이숭인은 차와 물로 매체를 삼아 신선처럼 맑고 높은 이상적인 교유를 꿈꾸었다.

글공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도은. 온종일 글공부는 지치도록 길기도 하다. 그는 친구 삼봉이 안화사 샘물을 돌솥에 끓여 차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안화사의 솔바람 소리 같은 찻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으로 잠시나마 선경(仙境)에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풀기를 기대해 본다.

삼봉이 자신이 보낸 정성 어린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도은에게도 최고의 기쁨이요 보람이다. 살면서 나를 알아주는 벗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이 어디 있으랴.

도은 이숭인(1349~1392)은 고려 말의 시인이며 학자이다. 명나라 과거에 응시할 고려의 문사를 뽑을 때 수석으로 뽑힐 정도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고 시문에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그 기개를 펴지 못하고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자 그 일파로 몰려 순천에 유배되었다가 조선 개국에 앞서 삼봉 정도전의 심복인 황거정에 의해 피살되었다.

삼봉 정도전은 이성계 휘하에서 조선 건국을 기획하고 구현해낸 인물이다. 조선조의 국가경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로써 정착시킨 조선조의 설계자였으나, 조선 초기 세자책봉 문제로 불거진 제1차 왕자의 난 때에 이방원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 후 왕위에 오른 이방원(태종)은 이숭인의 죽음이 무고함을 밝히고 1406년 이조판서를 증직하고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토록 다사로운 배려와 우정으로 주고받던 시간도 권력이나 정치적 야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기우는 고려는 사람의 정의(情誼)마저도 자멸시켜 버리는지 인간의 교유를 차 한 잔의 가치도 없게 만들기도 한다. 정도전은 이숭인을 배신하고 유배길에 사람을 보내 전라도 나주군 남평현에서 죽게 했으니, 이것이 도은의 마지막이요 고려의 멸망이었다.

아름다운 차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도 세월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투명한 녹차 한 잔은 실험 결과와 관계없이 지친 우리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기에 충분하다. 도은의 따사롭고 정다운 손길을 삼봉은 잊었을까. 내 손으로 우린 차 한 잔에 감사하며 무더운 여름을 식혀 보고 싶다. ☕

우통수에서 찾아낸 다수일여(茶水一如)

노자 도덕경 제8장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나온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물의 효능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성질을 비유한 말이지만 참으로 담박한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주의 4대 원소 중 하나인 물은 인류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차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2023년 5월 10일 오대산 천천산중에 있다는 우통수를 찾아가 보았다.

<편집자 주>



우통수 옆에는 서대 수정암이 있다.

차의 성지 우통수를 찾아서

바야흐로 여행 시즌이 돌아왔다.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했던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다. 이왕 떠나는 여행, 목적이 있는 여행이면 더욱 좋지 않을까. 차인이라면 한 번쯤 가 보고 싶은 곳이 강원도 오대산에 있다는 우통수(于筒水)일 것이다. 한강의 시원지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찻물이라는 찬사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버스로 약 3시간 남짓 걸리는 오대산은 불교문화의 성지이자 한강의 시원지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오대산은 비로봉을 주봉으로 동대산, 두로봉, 상왕봉, 호령봉 등 다섯 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 봉우리 아래로는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과 오대 암자 등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차에 대해 최초로 기록된 곳이 이곳 오대산이다. 지리산 쌍계사나 하동이 아니라 이곳 오대산에 차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우통수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통수를 찾아가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먼저 오대산 월정사까지 가서 다시 상원사까지 올라가야 한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는 대략 10km, 걸어서는 2시간 30여 분 걸리고, 차로는 20분 남짓 걸린다. 차로 가려면 비포장도로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를 올라가는 선재길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책 코스로 더 유명하다. 전나무 숲으로 둘러 쌓인 선재길은 사계절 산책하기에는 더없이 훌륭한 힐링 코스다.

선재길은 고뇌와 시름을 풀어버리고 새로운 행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선재길을 오르다 보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소리와 새소리, 전나무에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힐링의 순간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걷다 보면 불쑥 문수보살이 나타날 것만 같다. 문수보살은 우통수에서 길러온 물로 봉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선의 3대 명수, 우통수

상원사에서 호령봉 방향으로 가다보면 두 갈래 길 이 나온다. 하나는 중대 사자암으로 가는 길과 다른 하나는 서대 수정암으로 가는 길이다. 문제는 서대 수정암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 곳을 찾아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뜻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우통수가 있다는 점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렵게 보살을 만나 서대 수정암으로 오르는 길을 찾았다. 그 길은 험난하고 길게만 느껴졌다. 40여 분을 굵이굽이 산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서대 수정암이 보이고, 그 옆에 초라한 우통수 표지석이 보였다.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 간다면 그곳이 한강의 시원지라는 것을 알 수 없을 듯 했다.

표지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 이곳은 한수의 발원지로 물빛과 맛이 특이하고 물의 무게 또한 무거워 우통수라 불리며 속리산 삼파수와 충주 달천수와 함께 조선삼대 명수로 전하여지고 있다. 오대신앙을 정착시킨 신라의 보천태자가 수정암에서 수도할 때 이 물을 매일 길어다가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고 한다.

차인들에게 우통수가 유명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조선 3대 명수로 오대산의 우통수, 속리산의 삼파수, 충주의 달천수를 꼽는데, 그 중에서 우통수는 물빛과 맛이 특이하고 물의 무게가 무거워 찻물로 가장 좋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통수라는 말은 계곡물 또는 무거운 물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 샘으로 기록된 것은 조선 태종 4년 권근이라는 학자에 의해서이다. 권근이 저



술한 오대산 서대수정암 중창기에 우통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은 “오대산 서대(西臺) 장령(長嶺) 밑에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빛깔이나 맛이 특이하였다. 무게도 보통 물보다 무거웠고 사람들은 그 샘물을 우통수라고 불렀다. 우통수는 바로 한강의 수원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오대산 우통수에는 몇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신라 신문왕의 아들인 효명왕자가 오대산에 들어와 차를 달여 문수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다가 서라벌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효소왕이다. 그는 재위 4년 때인 696년에 지금의 상원사터에 ‘진여원(眞如院)’을 창건하여 문수보살상(문수동자좌상)을 봉안했고 20년 후에는 동종(국보 제36호)을 조성하는 등 불사를 일으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전설은 조선시대 세조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진여원을 중창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해 원찰(願刹)로 삼은 이야기로 지금도 생생하게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다양한 인문학적 볼거리 가득

평창군과 월정사는 2000년대 들어 우통수에 대한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에는 정비사업을, 2003년에는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우통수 원형보존의 기틀과 대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강원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우통수는 2011년 강원도 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됐다.

가장 큰 성과는 오대산국립공원 입구에 개관한 ‘한강시원지체험관’이다.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지어



우통수를 찾아가는 길목에 있는 상원사는 현존 유물 중 가장 오래된 동종(국보 36)이 있다.

진 체험관은 우통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디오와 영상으로 소개한 체험장과 다도실로 이뤄져 있으며 외부에는 음수 체험장이 설치됐다.

상원사 서대 수정암까지 올라갈 수 없는 노약자나 어린이는 이곳 체험장에서 우통수를 체험할 있다. 관람은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니 참조하기 바란다.

봄날이 끝나갈 무렵 차를 끓여 갈증을 달라고 싶지만

어찌 우통수의 물을 얻어 올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 허균 화사영시(和思穎詩)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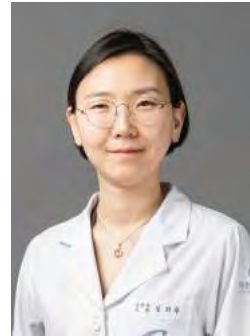
우통수가 자리한 오대산은 1400년 역사의 월정사를 품고 있다. 월정사는 풍광이 빼어나고 오만보살이 상주하는 불교성지이기도 하다. 한강시원지체험과, 정보박물관, 오대산 실록 및 의궤박물관이 있어 알뜰한 관광을 하기에는 적격이다. 차인에는 차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다선일여(茶禪一如)처럼 다수일여(茶水一如)라고 할만하다. ☯



한강 시원지체험관 안에는 우통수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탈모의 원인과 증상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가 탈모에 도움



가천대길병원 피부과
김희주 교수

원형탈모의 20% 스트레스가 원인

원형탈모는 비교적 흔한 탈모 질환으로 동전처럼 둥근 형태의 탈모반을 특징으로 합니다. 100원짜리 크기에서 500원짜리 크기 등 다양한 크기로 발생할 수 있는데 한 개의 탈모반이 나타나는 단발형에서, 여러 군데 광범위하게 탈모가 발생한 다발형, 또 외형적으로 원형은 아니지만 뺨과 같은 모양으로 후두부에서 측두부에 걸쳐 발병한 사행형이나 머리 전체에 걸쳐 탈모가 진행되는 전두형 또한 원형탈모로 구분됩니다.

탈모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형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사회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어 가볍게만 여길 증상은 아닙니다.

원형탈모의 원인은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

만, 자가면역 이상과 유전적 소인, 환경 인자들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면역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발 일부를 잘못된 면역 반응이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해 모발이 자라지 못하고 빠져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는 원형탈모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탈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심한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거나 심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자가면역 시스템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형탈모 환자의 약 20% 내외에서 스트레스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적당한 운동과 휴식 필수

원형탈모는 대개 치료하지 않아도 30~50%의 환자들은 자연 호전될 수 있습니다. 탈모반의 숫자와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80%에서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함께 정확한 진단과 상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일 탈모반이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 나타나거나 전신 탈모와 같이 범위가 넓다거나, 혹은 어린 나이에 발생한 경우, 탈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속눈썹과 눈썹이 빠지는 경우 등에서는 자연 회복이 어렵거나 원인 질환이 있는 예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형탈모의 치료법은 다양한데, 환자의 나이와 성별, 탈모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치료는 강력한 면역

반응 및 염증 억제제로, 피부 표면에 바르는 치료부터 주사, 약제 복용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외에 미녹시딜을 도포하기도 합니다. 미녹시딜은 두피의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해 발모 효과를 높여주는 원리로, 원형탈모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먹는 약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와 비교해 면역 및 염증 작용은 약하지만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형탈모를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당한 운동과 수면을 유지하되 만일 원형탈모가 발생했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회장단



이수자

한국 차문화의 거목을 추억하다

스승의 날을 맞아 명예이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규방다례 이수자들이 지난 5월 15일 분당메모리얼파크에 있는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산소를 찾았다. 명예이사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매년 스승의 날이면 규방다례 이수자들이 명예이사장님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명예이사장님을 추모하고자 이수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규방다례 이수자들은 “아직도 명예이사장님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것 같다.”며 명예이사장님과 함께 했던 지난 일들이 어제처럼 생생히 떠오른다고

입을 모았다. 명예이사장님은 회원들의 웃고름 매는법부터 행다례 시 손동작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회원들에게 규방다례를 비롯하여 생활차, 선비차, 가루차의 행다예법을 문헌적 고증을 바탕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과학적인 이치에 따라 다섯 가지 기본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첫째, 전통 존중의 정신이다. 규방다례에서 존중하는 것은 전통 행다례 정신이다. 둘째, 예절 존중의 정신이다. 차문화의 기본은 예와 경애사상으로, ‘예절에서 시작하여 예절로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예와 경애를 존중한다. 셋째, 과학 존중의 정신이다. 규방다례를 비롯해 협회에서 펼치고 있는

행다례는 모두 과학적 이치에 최대한 접근하려는 다례법이다. 넷째, 생활 존중의 정신이다. 차생활 예절에서는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형식 중심적인 차예절에서 벗어나 차를 내는 사람이나 차를 마시는 사람 모두 편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행다의 내외면에 있는 일정한 순서를 이해해야 한다. 다섯째, 청결 존중의 정신이다. 다구의 청결은 손님을 맞거나 본인을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며, 마음의 청결함까지를 뜻한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은 후학들에게 다섯 가지 정신을 익히도록 지도했다. 뿐만 아니라 명예이사장님은 이런 다섯 가지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한평생을 사셨다.

최소연 이사장은 “스승의 날, 날씨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수자 여러분들이 모여 함께 점심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명예이사장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명예이사장님께서 걸어왔던 길을 오늘도 헌신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수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할 것만 같습니다. 명예도 돈도 나오지 않는 우리 차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차문화를 하게 되어 저 또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명예이사장님의 뜻을 따라 차문화 활동에 전념합시다. 무엇보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명예이사장님을 찾아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한 이수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박광옥 부회장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수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사장님께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이나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준비해 온 선물을 드렸다.

명예이사장님의 비문을 단체로 읽으면서 차인으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다졌고, 더욱더 차인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차문화 발전에 앞장설 것을 이수자 모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득이 행사에 불참한 이수자 강정자, 박경숙, 이명숙, 조정미, 이막동, 최정희 이수자가 각각 십만원씩 보내주셨고, 박혜란 이수자가 십일만원원을 보



장학생과 전문사범



지부장

내주었다. 강순란, 연규남, 장영애 이수자가 각각 난 화분 한 개씩을 지원해 주었다. 또한 강희옥, 이금숙 이수자가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었고, 류소영 전문사범이 케이크, 허유진 전문사범이 구절판, 오윤성 교육생이 카네이션 케이크, 인천지부에서 보온병과 찻물, 테이블을 협회에서 헌다기를 지원했다.

모든 행사를 끝내고 최소연 이사장님과 함께 명예이사장님께 스승의 은혜를 부르면서 고인이 걸어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스승의 날을 뜻깊게 보냈다.

스승의 날에 참석한 회원들은 분당에 있는 산수에서 함께 점심을 하면서 협회 발전과 명예이사장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





3월 정기이사회 개최

협회 발전과 차문화 발전에 노력하기로 다짐

지난 3월 14일 오전 협회 교육장에서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강정자, 차영민, 박광옥, 박숙희 부회장단과 서울제1지부 이기분, 인천지부 조영아, 부산지부 조정미, 광주지부 박혜란 지부장, 서울제1지부 최정희, 광주지부 노영숙, 인천지부 이금숙, 이막동, 최지원, 이광용, 강희옥, 이명숙 이사가 참석했다.

협회 민달래 팀장의 성원 보고와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바쁜 와중에 이사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정기이사회를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지 임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는 정기이사회에 임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조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1월 자격검정 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제60회 동계연수 수료식 결과 보고, 제67기 지도사범 교육 진행, 제26회 전국 청소년차예절 경연대회 계획, 제34회 전국 차인큰잔치 차음식 경연대회 계획, 2023년 행안부 공익사업 계획 등이었다.

안전 중에서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는 2023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참가대상은 전국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3명이 한 조가 되어 조별 시연 영상으로 심사를 한다. 심사 일정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협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기준은 차내기(50), 절하기(30), 기본예절(10), 옷차림(10)으로 하고, 도포 안에 교복 등을 입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제34회 전국 차인큰잔치-차음식 경연대회를 2023년 5월 20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 지부장 및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기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협회 발전과 차문화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박숙희 부회장의 후원으로 모든 임원이 ‘진평’에서 점심을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



최소연 이사장 LA 한인 축제재단 김준배 대회장과 면담

한국의 차문화가 세계에 보급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 협회 교육장에서 최소연 이사장과 차영민 부회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재단 사무국의 김준배 50주년 총괄 대회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배 총괄 대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한국차문화협회가 2023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제50회 로스앤젤

레스 한인 축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준배 총괄 대회장은 “한국 차문화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차문화협회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으며,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한국의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최소연 이사장님께서 한국의 차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권위와 전통이 있는 (사)한국차문화협회가 한인 축제에 참석해 주시면 더없이 영광이겠습니다.”라며 귀빈 자격으로 참석을 요청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미국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계신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우리 협회를 직접 방문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한인 축제재단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974년 코리안 퍼레이드로 시작된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가 벌써 50주년이 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1996년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차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 재단의 한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는 최소연 이사장과 차영민 부회장, 김준배 50주년 총괄 대회장은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공감과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자”라고 의견을 모았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면담에서 김준배 총괄 대회장은 “한국차문화협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차문화 교육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라며 기회가 되면 또다시 방문하겠다고 면담 내내 호감을 표시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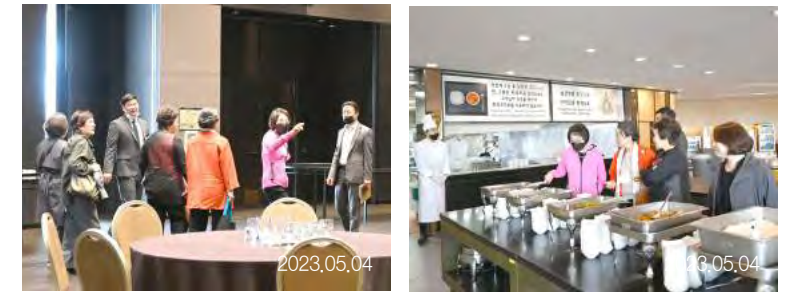




교육위원회 여름 하계연수회 장소 시찰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

협회 최소연 이사장은 부회장단과 함께 지난 5월 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라비돌리조트를 시찰했다. 이번 여름 하계연수회 개최지로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협회는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동계연수회와 하계연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번 라비돌리조트 시찰은 코로나19 기간에 청풍리조트가 대대적인 침실 개·보수 공사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새로



운 연수회 장소를 모색하기 위한 시찰이었다. 연수회 장소로 여러 곳을 검토한 결과 라비돌리조트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찰하게 된 것이다. 최소연 이사장과 김가영, 차영민, 박광옥 부회장과 민달래 팀장은 교통의 접근성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서 조식과 중식, 석식 문제 등 회원들의 먹거리를 살펴보았다. 한식과 중식, 양식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선택의 폭이 넓었고, 가격대도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라비돌리조트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침실은 침대방과 온돌이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300여 명 이상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살펴보았다. 식당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자재 또한 싱싱해 보였다. 이어서 컨벤션센터로 이동 최대 2,0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경기 남부 최대규모의 시설 신텍스를 살펴보았다. 이 동식 칸막이로 분할 및 통합을 할 수 있는 최신식 컨벤션센터이다. 회원수에 따라 가변적으로 회의장을 나눌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라비들은 불어로 '황금의 인생(The Life Gold)'이란 의미로, 서울 수도권과 1시간 이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며, 주변에는 세계문화유산 용건룡이 있어 관광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비돌리조트를 둘러본 최소연 이사장과 부회장단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체크하고, 회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착오가 없도록 민달래 팀장에게 지시'했다. 라비돌리조트를 시찰한 후 최소연 이사장님의 후원으로 수원 왕갈비로 점심을 하고, 주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용건룡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찰을 마쳤다. 🍷



최소연 이사장 규방다례 보유자 인정 10주년 축하

규방다례 무형문화재 이수자들과 함께 기념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이 인천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 인정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규방다례 이수자들이 4월 29일 이사장님 댁에서 모임을 했다.

지난 2022년 이귀례 명예이사장이 인천시로부터 규방다례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최소연 현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이 제2대 보유자

로 지정되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최소연 이사장은 무형문화재 제11호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현재 최미리 전 승교육사와 박광옥 전승교육사 등을 포함하여 30여 명의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을 배출하였다. 이는 최소연 이사장의 노력이 일궈낸 결실이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규방다례 무형문화재 제11호 제2대 보유자가 된 것이 어제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협회와 우리의 차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수자님들이 계서 참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차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규방다례 보유자로서 제 역할과 한국의 차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박광옥 전승교육사는 “이수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최소연 이사장님께 금일봉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차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자 일동은 항상 이사장님을 본받아 규방다례 무형문화재 제11호의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이수자들은 최소연 이사장님과 함께 점심과 차를 마시며, 한국의 차문화 발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난 시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소연 이사장님 댁에서 모인 이수자들은 친정에 온 것처럼 서로 안부를 묻는 등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또한 이수자들이 떠날 때는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주렁주렁 물건을 싸 주듯이 최소연 이사장은 규방다례 이수자 각자에게 다양한 차와 음식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날 참석한 이수자들은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비롯하여 이수자 김가영, 차영민, 강정자, 강순란, 박숙희, 박경숙(대구), 조정미, 이막동, 이명숙, 연규남, 강희옥, 이금숙, 유현주 등이 참석하여 최소연 이사장의 보유 인정 10주년을 축하했다. 🍵





명인에게 직접 배운 웰빙 영양떡과 호두강정

박혜란 지부장의 지도로
최고의 웰빙 음식 만들기

봄기운이 완연한 3월 18일 전남 광주시부에 21기 대학원생 20여 명이 차음식 실습을 위해 모였다. 이날 차음식 실습은 웰빙 영양떡과 호두강정이었다. 차음식 실습을 위해 아침 일찍 전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은 모처럼 동기들을 만나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눴다.

오전 11시 정각, 광주시부 지부장이자 김치 명인인 박혜란 지부장의 지도로 모두가 미리 준비한 앞치마와 수건을 착용하고 교육장에 모였다.

수업을 위해 광주시부 회원들은 미리 조리실을 청소하고 각종 음식을 준비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

박혜란 지부장은 “아침 일찍 먼 곳에서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한 만큼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질문하시고, 될 수 있으면 수업 중에는 잡담을 나누지 말았으면 합니다.”라며 오늘 수업의 중요성을 말했다.

첫 수업은 웰빙 영양떡 만들기였다. 찹쌀을 깨끗이 씻어 5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다음 건져 물기를 뺀 후 소금 간을 하여 곱게 뺑는 방법에 대해 박혜란 지부장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최고급 밤 고르는 법과 밤껍질을 벗겨 4~6등분하고, 대추는 씨를 발라내고 4등분 해야 먹기 좋게 된다고 말했다. 음식의 맛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한다는 말에 회원들 모두 공감했다.

호박꼬지는 2cm 길이로 썰어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불린 후 건져 설탕을 넣어 버무리고, 검은콩은 씻어서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을 넉넉히 붓고, 10~15분 정도 삶아 건져서 물기를 뺀 후 설탕과 소금을 넣고 고루 버무린다. 붉은팥은 씻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끓어오르면 첫물은 따라버리고, 다시 물을 붓고 팥알이 터지지 않도록 무르게 삶아 건져낸 다음 소금을 넣고 간을 하여 함께 버무린다.

다음으로는 찹쌀가루에 물을 조금씩 주면서 잘 비비고 섞은 다음 녹차 가루를 넣고 고루 섞은 후 밤, 대추, 불린 호박꼬지, 김정콩, 붉은팥, 설탕을 넣어 함께

골고루 섞는다. 모든 재료가 골고루 섞은 후 찜기나 시루에 젖은 배 보자기를 깔고, 떡가루를 주먹으로 쥐어서 뭉텅뭉텅 시루에 안친다. 한꺼번에 재료를 평평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시루 안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공기가 잘 통해야 떡이 잘 익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젖은 배 보자기를 덮고 김이 오른 솥에 올려 가루 위로 김이 고루 오르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30분 찌고 약한 불로 5분 뜸을 들여 떡이 투명하게 익으면 네모진 틀에 꿀이나 식용유를 바르고 쏟아부은 후 꺾꾹 눌러 담아 굳힌다. 그런 다음 알맞게 썰어 그릇에 담아내면 맛 좋은 웰빙 영양떡이 된다.



21기 원우들이 만들어 낸 화합의 수업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수업은 5시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원생들은 지루함을 모를 정도였다. 수업이 끝났을 때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서로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광주에서 진행된 이번 대학원 수업은 웰빙 영양떡과 함께 두 번째 차음식으로 호두강정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호두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 다식이나 영양간식으로 최고의 음식이다.

먼저 호두를 끓는 물에 잠시 담가 쓴맛과 불순물을 뺀 후 설탕으로 조려 기름에 튀기면 바삭한 호두강정이 된다. 이때 튀기는 온도는 중온 이하가 좋은데 높으면 겉만 타버리기 쉽다.

먼저 만드는 방법으로는 끓는 물에 약 12분 정도 담가 두어 쓴맛과 불순물을 우려낸다. 그리고 냄비에 호두, 물, 설탕, 소금을 넣고 끓인다. 그런 다음에는 불을 약하게 하여 조린 다음 채반에 받쳐 설탕물을 제거한다.



조린 호두를 140℃의 기름에 갈색이 나게 튀겨 완성한다.

봄철 행사가 많아진다. 차와 함께 차음식은 찻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다. 간편하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웰빙 영양떡과 호두강정으로 이 여름 나만의 차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업을 함께 한 광주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서울제1지부 아산지부, 인천지부, 전남지부 21기 대학원생은 박혜란 광주지부장의 열정에 많은 박수와 함께 고마움을 표시했다.👏





2023.04.01

실기를 통해 우리의 차문화를 배우는 대학원생 21기

기본을 탄탄히 할 때
우리의 차문화가 더욱 번창

지난 4월 1일 인천규방다례보존회 교육장에서 최소연 무형문화재 제11호 보유자이자 협회 이사장님의 대학원 수업 '전통다례와 오늘날의 차생활'이 있었다.

이날 수업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박광옥 전승교육사와 조영아 이수자 등 10여 명이 강사로 나서 교육생들에게 1대1 맞춤 수업을 진행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된 수업은 4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강행군으로 이어졌다. 생활차 다례를 비롯하여 선비차 다례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부터 고급 과정까지 전 과정의 수업이 진행됐다.

최소연 이사장은 수업에 앞서 “행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을 안 다음에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이 없는 것



2023.04.01



2023.04.01

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1300여 년의 우리 차문화는 그 장구한 세월 속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인 생활차 다례와 선비차 다례를 통해 기본적인 것을 확실히 익힌 다음, 교육 현장에서 후학들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차문화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먼 곳에서 아침 일찍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이신 대학원생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 말씀을 해주었다.

이어서 박광옥 전승교육사가 시범을 보이고, 이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따라 하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대학원생들은 조를 나눠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시간 내내 이수자들은 대학원생들에게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교육에 온 힘을 다했다. 생활차 다례에서는 모두가 한 번씩 실습할 수 있도록 조를 편성했으며, 규방다례 이수자들은 전담 팀을 지정 관리하여 강도 높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대학원생 각자에게 손가락 모양, 팔 모양, 몸동작 등 하나하나 손수 가르쳐 주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전통다례와 오늘날의 차생활' 커리큘럼에 맞게 전통다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 차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옛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차문화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을 모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차문화 예절부터 철저하게 익힌 다음 새로운 차예절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것이 생명력을 갖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 차문화의 기본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 우리 차문화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수업 내내 강조했다.



박광옥 전승교육사는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 교육할 때 우리 차문화를 제대로 알고 가서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수업시간 내내 규방다례 이수자들과 최성미 장학생, 민달례 팀장, 유현주 팀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훌륭한 수업이 되었다.

수업 시간 동안 땀을 흘리시며 가르쳐 주시는 최소연 이사장님과 그것을 배우려는 대학원 21기 원우들을 보면서 우리의 차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다. ☺



맛과 멋에는 그만큼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글_서울제1지부 4학기 지도사범 교육생 장미애



차(茶) 음식 만들기 수업에 앞서 기대 반 설렘 반. 차와 함께 할 수 있는 달콤한 화과자 만들기!!!

수업에 앞서 지부 총무님께서 보내주신 화과자 사진을 보며 알록달록 화려함에 놀랐다. 내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화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하는 걱정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사님께서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해 주시고 옆에

서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반죽부터 시작했다.

화과자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예쁘게 만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것들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나마 이사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그래도 이 정도의 수고로움만 있는 거라고 하셨다.

화과자의 소에 들어가는 앙금에는 견과류를 넣어서 미리 반죽을 해주셨는데 동글동글 소를 만들면서 조금 떼어먹었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다. 자꾸만 손이 가는 것을 참으며 화과자의 소를 준비했다.

화과자의 겉에 모양을 만들어 줄 반죽은 찹쌀 물을 섞어 전자레인지에 이용한 후 수분을 날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뜨거운 상태에서 주걱을 이용해 치대기를 세 번 정도 반복하니 이사님께서 이제 들어가 만들어도 된다고 하셨다. 수분을 날리는 과정에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치대는 데도 힘이 들었다.

이제 화과자의 모양을 만들어서 꾸며야 하는데 팔

이 아파서 어떻게 만들지 하는 생각도 잠시 식용 색소 물을 이용해 우선 좋아하는 색을 조금 넣어 조물조물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니 팔이 아프다는 생각은 어느새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고민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사님께서 처음이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어보면서 위에 꽃잎이나 나뭇잎 등으로 꾸미기를 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다. 특히 첼로 된 물 빠진 망을 이용해 반죽을 꼭 누르니 가늘고 긴 실처럼 뽀글뽀글 올라오는 반죽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물을 이용할 수 있구나!’ 하는 감탄도 하게 되었다.

동그란 모양의 화과자 위에 꽃수술처럼 살짝 올리니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다. 동글동글

알록달록 예쁜 색들로 기본 화과자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작은 꽃송이와 나뭇잎, 눈송이 등을 만들어 올리면서 조각가가 된 것도 같고 유명한 레스토랑의 메인 요리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처음 만들어 본 화과자 시간과 노력이 좀 부족하듯 싶었지만, 결과물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다양한 차음식 만들기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수업을 위해 멀리서 오신 이사님과 교육생들을 위해 미리 수업 준비를 해주신 지부장님과 총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 음식 만들기에 앞서 화과자로 몸풀기

맛과 멋에는 그만큼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글_서울제1지부 4학기 지도사범교육생 김정아



화과자는 어느 제과점에서 파는 고풍스러운 간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과연 직접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참석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죽할 때는 엄청난 강도의 반복적인 휘젓는 힘이 필요해서 놀랐고, 색깔이 입혀지고 꾸미기가 계속될수록 너무 예뻐지는 화과자에

감동!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감상하며 “우리 엄마가 이걸 만들었다고?” 아이들이 더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에 교육사범으로 입학한 지도 벌써 4학기 졸업반. 아쉽기도 하고 곧 졸업이니... 다양한 수업으로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곤지암 화담숲으로 서울제2지부 연수를 다녀오다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이정옥



지난 3년간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지부 회원 간에 원활한 소통과 한 해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자는 다짐으로 곤지암 화담숲으로 서울제2지부 연수회를 다녀왔다.

이천의 한정식집 '청목'에 모여 허기진 배를 채우며 즐거운 담소와 함께 오지 못한 회원의 안부와 아쉬움을 나누었다. 청목을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명성도예를 찾았다. 명성도예는 회원들이 즐겨 찾는 공방이다. 여러 가지 차도구들이 즐비했다. 모두가 즐거운 쇼핑을 만끽했다. 부회장님께서 옷칠을 한 차시를 참가한 회원들에게 선물해 주기도 했다. 뒤편 받으면 즐거운데 부회장께도 그런 즐



거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을 놓쳤다.

이천은 도예의 고장이다. 도자기 공방들이 모여 있는 '이천 도자예술 마을'을 구경했다.

이날 아쉽게도 많은 공방이 휴무였다. 그래도 몇몇 공방이 문이 열려 있어 개성 있는 도지기와 여러 가지 설치물들을 구경했다. 따뜻한 햇볕과 맑은 공기가 여행이라면 여행일 수 있는, 일상을 벗어난 여유와 흥분한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모두 소녀 같은 감성으로 사진을 찍고, 웃고, 욕심을 부려 햇살을 즐겼다.

화담숲에 마련된 숙소 곤지암 리조트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어찌면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불고기, 코다리찜, 부침, 민어탕, 곡주, 물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과일, 커피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도록 푸짐한 음식들~ 그리고 송 선생님이 준비한 단복 같은 앞치마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둘러앉아 끝없는 담소를 나누고 또 차를 마시고 나이 들어감에 대한 소회와 차를 하는 차인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애쓰는 모습, 상대의 부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족함을 타하지 않고 내가 보완하려는 모습, 모두가 따뜻한 심성을 가진 분들임을 오랜만에 가진 지부 연수로 새삼 깨달았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 중에서 김혜자 배우의 독백이다. 우리 삶이 그렇다. 남의 상처보다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더 아프고 나만 고단한 삶이지 하는 순간들이 있다.

상처받지 않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처가 없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한다. 어떤 상처에도 견디는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 돌이켜보면 모두가 아픔을 안고 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따뜻한 사람들과 만남이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아침마다 부회장님의 좋은 글, 감동의 시 한 편~.

봄날 흐드러지게 핀 봄꽃들을 '봄 바람난 녀들'이라고 표현한 권나현 시인의 시를 맛깔나는 사투리로 회원들이 읽어보며 바람난 꽃들이 되어보았다.



한 언론사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조사를 했다. 100명의 응답자 중에 단 3명만이 성공한 삶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명문대 신입생 중 90% 이상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최고가 아니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누구나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지만 최고는 한 명뿐이다. 90%에 속한다고 실패한 인생을 산 것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다.

기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얼마일지 모르는 남은 시간은 따뜻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 새삼스럽게 욕심부린다고 빛나는 성취를 장담할 수 없다. 욕심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신만 사납고 추해 보인다.

자기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나를 위하고 모두를 아끼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하는 생각을 한다. 즐거운 웃음이 함께 했던 행복한 지부 연수였다. ㉠

제다실습으로 차 생활을 만끽하는 오월



글_전북지부 익산지회장 이성자

전북지부(익산지회)는 녹차를 따고 뒤는 과정을 체험하기 위하여 정읍 칠보산 자락에 있는 20년 된 차밭에 다녀왔다. 지회 회원이기도 한 '정종후'의 차밭이다. 차밭과 체험장 이름은 '정녹원'이다. 비가 내리고 난 이후이기에 공기는 맑고 선선하였다.

차밭은 북쪽을 향해 있었으나 반음지로 오히려 차 맛이 진하다는 품평이 있다. 세 방향이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 있고 차밭 앞쪽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차밭 아래에 작은 못이 있어서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오전 중에 탄 잎이 맛이 좋다고 하여 우선 복장을 갖추고 바로 차밭에서 잎을 골라 채취하는 하루를 시작하였다. 1창 2기(1槍 2旗) 어린 순을 따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있어야 쉽게 딸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명나라 때 차 공정이 복잡한 단차(떡처럼 찌

서 뭉쳐 만드는데 산차라고 함) 대신 아차(차의 싹과 찻잎)로 바꾼 것인데, 중국에서는 일아이엽(一芽一葉), 일아이엽 등으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한순에서 세 잎을 따면 1창 2기가 되는 것이다. 곡우가 지났지만, 이곳 차나무의 성장이 늦은 탓으로 어린 찻잎을 딸 수 있었다.

차밭은 오월의 하늘과 함께 신록의 가슴을 물들이고 있었다. 바쁜 손놀림은 설렘으로 가득하였다. 새 차 맛에 빠지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기 때문이요 함께 한 차인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아름다웠기 때문일 것이다. 준비해온 음식과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찻잎으로 숙성시킨 오겹살로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누고 바로 이어서 찻자리를 하였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찾아온 우리 지회 차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냈다.

“차밭은
오월의 하늘과 함께 신록의 가슴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은 차를 뒤는 수제 솜이 무쇠로 되어서 처음 뒤을 땀 300℃로, 두 번째는 250℃, 세 번째는 150℃로 뒤는 후 건조기에서 80℃로 1시간 반 정도 건조하는 사이에 우리는 주변을 산책하며 맑은 공기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콧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였다.

마지막 공정은 100℃로 살짝 뒤집는 정도로 가향 처리하며 마무리하였다. 완성된 차의 빛깔은 다시

태어난 초록이었다. 그 빛과 향의 아취에 제다의 전율을 느낀다. 우리 회원의 차밭에서 제다실습을 하게 되어서 기쁨이 두 배였다.

사장님의 친절한 제다 과정 설명은 우리 회원들에게 기억에 남을 것이다. 힘든 내색 없이 소풍 나듯 즐겁고 유익한 실습 과정은 소중한 하루가 되었다. 남은 해가 서산에 머뭇거릴 때 우린 아쉬움에 귀향하였다. ☺



단옷날엔 다茶자字부작符作을



불가에서는 인연을 아주 중요시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세상과 세상 사이의 인연.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 또한 차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중국과 일본 등 차문화가 발달한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볼 때, 우리의 차문화가 유독 순수하고 고요한 것은 인연을 중시하고, “禪”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차 한 잔을 두고 눈을 감고 앉아 冥想을 시작하면 맑고 고요한 바람의 움직임이 느낄 수 있다. 코끝에 스치는 바람 미풍에도 움직이는 맑은 풍경 소리, 그리고 세속에서 벗어난 자연 소리는 내면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들이다. 그것들을 따라 마음속에 난 길을 따라가면 어느새 속세의 티끌을 벗고 내면에 몰입할 수 있다.

곧 다음 달 端午가 온다. 차인들이라면 단옷날 오시에 주사(붉은 글씨)로 차다(茶) 자(字) 符作을 많이 써서 다실이든 집이든 불이면 좋은 기운도 가정에 들어오고 벌레나 뱀, 지네가 엄습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재앙을 막고 악귀를 쫓기 위해 옛 선조들은 써서 붙였다. 茶 한 잔. ☯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신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흔적을 입고 그들의 다매(茶畵)를 이은 “금명보경(錦溟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溟寶鼎의 禪 사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 사랑방 (가나다 순)

경남지부 · 광주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순천지부 · 아산지부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경 남 지 부

경남지부, 하동세계차엑스포 다례시연과 다회

하동 다향이 가고파 바다향으로 이어지다



지부장 황미경

‘인류의 건강과 행복, 세계 평화를 위한 차(茶)의 시대’라는 주제로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과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는 엑스포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를 주제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경남 하동은 우리나라 차 시배지로 삼국사기에 ‘홍덕왕 때 차 종자를 지리산에 심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200여년이 넘는 역사성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차를 주제로 한 첫 정부 승인 국제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동스포츠파크 제1행사장에서 다양한 세계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개면 야생차밭 인근의 제2행사장은 우리차 시배지(始培地) 하동을 소개

하는 주제 영상관이 있고, 엑스포 기간동안 특별 행사와 경연행사, 체험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다함께 차차차 다례 시연과 다회’가 펼쳐지는 데, 5월 9일에는 우리 경남지부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동 다향이 가고파 바다향으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선비차와 생활차 무대 시연과 찾자리를 펼쳤습니다. 사범과 예비사범의 참여로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부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맘이 편치 못 했는데 ‘세계차축제’에 참여한다는 밴드 글을 보고는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다 함께 한마음으로 단아하고 멋진 차 시연을 하고, 소박한 찾자리를 펼친 사범과 교육사범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경남지부 찾자리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차를 마시고 다양한 다식을 맛보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분들도 편하게 차를 마시고 색다른 다식을 맛보며 찾자리가 이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늘 공부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신청에서 마무리까지 애쓰신 지부장님과 다 함께 준비하고 연습하고 함께 해 준 회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로 더욱더 경남지부가 성장해 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뒤에서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글_전문사범 이용숙

광 주 지 부

웰빙 영양떡과 호두강정 만들던 날

다식 수업을 마치며

들녘에는 봄을 알리는 꽃들이 수줍게 피고 봄바람도 선선하게 불던 3월 18일 21기 차문화대학원 수업이 있었다. 다식 수업은 전통음식 명인이신 박혜란 지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는데, 실습내용으로는 '웰빙 영양떡, 호두강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수업에 기대가 많았다. 수업 횟수만큼 그 새 정이 많이 든 21기 사범님들. 사범님들을 광주에서 맛을 생각을 하니 그저 반가운 마음이 앞섰고, 새벽부터 광주행을 나서라 고되셨음에도 서로 만나매 절로 웃음꽃이 피어났다. 새 학기 책만 큼 설레고 반가운 순간들이었다. 열정적인 지부장님의 다식 강의와 시연을 참관하면서 조를 나누어 실습내용을 순서대로 재현해 보았다. 지부장님

은 수업 중간중간 재료를 선별하고 다루는 꿀팁까지 알려주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조마다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며 맛 좋고 먹음직스러운 영양떡과 호두강정을 완성해 내었다. 전국에서 모이는 첫 수업을 위해 지부장님은 '봄과 여름'이라는 주제로 손수 찾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덕분에 긴 수업을 마친 사범님들과 귀한 찾자리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다식 수업과 찾자리를 마련해주신 박혜란 지부장님, 원활한 수업을 위해 도움 주신 여러 선생님, 수업에 참여해주신 21기 차문화 사범님들께 감사합니다.

글_ 21기 차문화대학원 교육생 김보련



지부장 박혜란



2023년 1학기 개강식

새로운 도약을 향한 개강식을 거행하다

2023년 3월 4일 광주지부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개강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것이 일시에 멈춘 암울한 시간이, 그 끝을 알 수 없었던 기나긴 터널이 끝나고 봄기운이 완연한 3월에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반가움을 나누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새 회원님(김선미, 정인영, 정주희, 장경래, 장경애)이 오시었고 많은 회원님께서 참여하시어 개강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2월 18일 제60회 동계연수회에도 많은 회원님이 참여하였고, 이번에 63기 지도사범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새롭게 도입한 변화된 교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가능하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최소연 이

사장님과 협회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며,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동료와 선배 회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지부를 이끌어 이 모든 배려에 보답하는 광주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차인의 길을 걷게 된 신입회원님께 축하와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혀 기품있고 우아한 차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경북제1지부

대구제1지부 ‘어느 수집가의 초대’ 찾자리 마련

대구국립박물관에서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지부장 박경숙

지난 4월 10일 대구국립박물관에서 ‘어느 수집가의 초대’란 제목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리셉션 준비는 (사)한국차문화협회 대구경북제1지부가 맡았다. 찾자리와 다식을 사범 10여 명이 준비했다. 테이블 세팅부터 음식과 다화의 조화까지 빈틈없는 준비로 내외 귀빈들의 호응이 높았다.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분위기 연출을 총 지휘한 박경숙 지부장은 다식과 찾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하면서 오시는 손님께 정성을 다했다. 초대 손님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한 대구경북제1지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준비로 행사가 훌륭히 마무리 되었다. 행사 진행 내내 잘

꾸며진 리셉션과 찾자리는 내외 귀빈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한국차문화협회 대구경북제1지부의 위상을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경북제1지부 사범들 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부장과 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회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대구국립박물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설명회는 대구 지역 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이번 리셉션으로 한국차문화협회의 인지도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제1지부

차와 함께 할 수 있는 달콤한 화과자 만들기

금귤정과에 이어 화과자에 도전



지부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에서는 차음식 수업으로 화과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작년에 금귤정과를 해 보았기에 올해는 난이도를 올려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도사범 교육생 중 1학기 선생님들에게는 기본 다식 박기로 콩다식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통 다식판에 찍어 놓은 다식을 사진에 담은 교육생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화과자 수업이 손이 많이 가는 관계로 콩다식은 미리 콩가루에 꿀을 넣어 반죽하여 찍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화과자를 멋지게 만들어 낸 교육생 여러분들이 모두 대단해 보였습니다.

다음 차음식 만들기 수업도 기대가 되었으며 5월 20일 차음식 만들기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어린이 차예절 수업 실습을 마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는 교육 필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차예절 수업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실습은 대학원 과정의 필수 과제로 일정 시간 이상의 실습 경험과 보고서 제출이 있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처음인 데다 차예절 수업도 너무나 오래간만이었어서 기대보다 긴장감을 더 많이 안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가르치게 된 아이들은 어린이집 두 곳의 7살 여자아이들입니다. 처음 보는 날부터 품에 와서 안기고 손을 잡아주는 아이들 덕분에 긴장을 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나는 7살 아이들, 더구나 아들만 둘 키워본 저에게는 여자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오른손과 왼손도 구분을 잘 못 했고 성인 학습자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경험 많으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지도도 받아 가며 오른손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팔찌를 끼워 '팔찌 손'으로 연습도 하고, 손이 작은 아이들의 크기에 맞춘 다건도 만들어 가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록 애써 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순서를 못 외우는 아이, '다리가 아파요, 흘렸어요, 뜨거워요.'를 연발하는 아이, 연습하다가 누워버리는 아이, '녹차가 맛이 없어요.'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차 익숙해지면서 불편한 자세로 긴 시간 연습을 이어가고 훌쩍훌쩍 손님 잔의 차까지 맛있다며 다 마셔내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보다 제가 더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예절 교육이 아이들의 인성 예절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더 강한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차예절 인성 교육에 더욱 관심으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실습의 기회를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_대학원 21기 강유리



서울 제2지부

경주에서 스님들께 차 공양을 하다

다양한 다식과 준비한 차로 큰 호응을 얻다



지부장 박광옥

경주에서 스님들께 차를 공양할 기회가 와 짐을 가득 싣고 출발했다. 박광옥 부회장님의 차로 허유진 총무와 류소영 이사가 함께했다.

오전 다식으로는 굴병 주악, 꽃 송편, 올리브정과를 준비하고 차를 내드렸다. 오후 다식으로는 서여향병, 호두찰떡, 들깨호박정과 등으로 다식을 준비해 놓고, 힘들게 수련하고 오시면 바로 차와 다식을 드실 수 있게 했다.

장효순 이사도 참석하기를 원했으나 이미 토요일 참석인원을 정해 함께하지 못했는데, 손이 부족해서 장효순 이사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다음 날은 스님들이 오전에 조식으로 죽을 드시고 수련을 하신다고 하셔서 오전 찾자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준비했다. 차와 다식으로 빈속을 따뜻하게 하는 대추단자와 잣강정으로 힘이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꽃부꾸미로 든든하게 차를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다.

올라가야 하는 시간이 있어 3시에 찾자리를 마무리한다는 소식에 너무 아쉬웠다. 오후에는 개성주악과 개성약과, 아보카도를 준비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든든하고 피로에 지치지 않는 다식이다.

차는 바꾸지 않고 다식만 바꾸면서 차를 즐기도록 찾자리를 꾸몄다. 다식의 다양함과 여러 가지 경험으로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글_이사 류소영



순 천 지 부

순천 생태문화교육관에서 영·호남 화합 대축전 열려

순천지부는 응비하는 영·호남 찾자리로 두 지역 화합 일조



지부장 김영애

지난 4월 27일 순천 생태문화교육관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영·호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응비하는 영·호남이라는 기치 아래 경북 이철우 도지사와 전남 김영옥 도지사가 한자리에 만나는 VIP 환담장을 순천지부에서 꾸며, 아름다운 동행의 멋진 찾자리를 펼쳐 두 지역의 화합 도모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023년 찾아가는 인성 전통예절 교실 실시

여수 진성여자중학교, 충덕중학교를 순회 지도

순천지부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여수 진성여자중학교 1학년 (85명)을 시작으로 5월 12일에는 충덕중학교 1학년 (89명)을 순회 지도하며 “2023년 찾아가는 인성 전통예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2학년도부터 여수 교육지원청에서 여수관내

중등 7개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찾상머리 인성교육을 순천지부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매달 각 학교를 순회하며 법고창신의 철학 아래 전통과 지혜를 배우고 익혀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며,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청소년들에



게 차문화 예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예(禮)를 습득하여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와 협동하는 정신으로, 더 나아가 품격 있는 인성을 형성시키고자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 학생예방 지도와 차문화 예절 교육의 기저



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차문화 예절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매너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의 문화를 알고 익히는 것은 K-culture를 사랑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제11회 보성세계차 엑스포 참관 시대별 다도구 유물 700여 점 컬렉션 감동



지난 5월 2일(화) 순천지부 회원들은 초록빛 융단이 펼쳐진 보성 한국차문화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이곳에서는 제 11회 보성세계차 Expo가 열려 다양한 차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이 행사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동양 차문화 2천년 유물전시회였다. 보성세계차 Expo 조직위원회에서는 김성태 선생님을 특별 초빙하여 국내최대 규모의 동양 다도구 유물 700여 점을 컬렉션하고 있었다. 이날 김성태 선생님께서는 우리 회원들에게 신농

시대부터 당, 송, 원, 명, 청, 근대시대까지 약 2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작품, 한점 한점의 쓰임새와 다도구 변천사를 2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해주셨다. 시대별 다도구의 쓰임새의 궁금증을 한눈에 풀어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2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진귀한 다도구의 위대한 유산 앞에서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의 회귀여행을 하는 듯 값진 시간이었다.

아 산 지 부

아산 토정관에서 아산지부 주관 관·계례 개최

성인이 되는 순천향대학생 40여 명 참석



지부장 김태임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7일 아산 토정관에서 관·계례 행사가 열렸다. 집례 조창렬 박사, 관빈 김종욱 토정관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경규 아산시장, 아산학 연구소장을 비롯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한국차문화협회 아산지부와 토정관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성년자는 순천향대학교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관례는 성인이 되는 남자에게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3번의 관을 씌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가관례와 술로써 예를 완성하며 성인이 되었음을 하늘에

고하는 초례, 성인이 돼 조상이 내려준 몸과 이름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이름 대신 부를 ‘자’(字)를 내려주는 명자례 순서로 진행되었다.

계례는 땅은 머리를 풀고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아줌으로써 비로서 성인 여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식이다.

김태임 아산지부장은 “관·계례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의 정신을 되짚어보고 마음을 정화해 성숙해지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온스 총회 찾자리 마련

한국의 차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산지부는 충청남도 라이온스 총회에서 내외귀빈 15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찾자리를 봉사하였다.

차는 연꽃차, 가루차, 발효차, 녹차와 다과로는 정과, 다식, 꽃양갱 등을 선보였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얼음을 넣은 냉연차가 반응

이 좋았다. 녹차도 핫차여서 향기가 더욱 진했다. 가루차는 처음 마셔보는 분들이 많았다. 신기하고 향기가 난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마시고들 가셨다. 녹차 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질문이 많았다.

한국의 차문화를 알리는 보람된 하루였다.

인천지부

개성주악과 진달래화전 만들기

봄맞이 개성주악과 화전만들기 진행

인천지부는 회원들에게 봄맞이 행사로 개성주악과 진달래화전 만들기를 진행했다.

개성주악은 찹쌀가루와 밀가루에 막걸리로 되직하게 반죽하여 빚어서 기름에 지져낸 떡으로 주로 개성지방에서 많이 해 먹는다고 하여 개성주악이라 불리는 음식이다.

조영아 지부장의 지도로 진행된 이번 봄맞이 개성주악 및 화전만들기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부장 조영아



고 하반영 화백 유작전에 인천지부 찾자리 마련

건축기금 마련에 연예인과 일반인들 참여

중국 나자렛 선교회 주관으로 '동양의 피카소'라 불렸던 고(故) 하반영 화백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유작전이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소재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유작전은 2018년 12월 22일 중국 흑룡강성에 위치했던 수녀원의 철거 이후 중국에서 고생하며 수도 생활을 하시던 32명의 수녀님들을 위해 중국 소화테레사 수녀원 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로 인천지부에서 찾자리를 마련했다.

찾자리에는 인천지부 회원 등이 참석하였고, 찾자리를 통해 행사를 위해 모인 연예인과 일반시민들에게 우리 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 지하수녀원 건립기금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전 남 지 부

해남 대흥사에서 서난경 지부장 강의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과정 개설



지부장 서난경

지난 4월 8일 초의 문화 계승 본고장 해남 대흥사에서는 취미반과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3급 과정을 개설하고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수업을 시작했다.

이번 개강은 해남 대흥사에서 신도들과 해남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성 초의선사의 차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템플스테이 차 시간을 책임져줄 사범 배출을 위해 서난경 전남지부장을 초청해 이루어졌다.

1년 과정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이번 교육에는 차에 대해 새롭게 접하는 3급 교육생과 오랫동안 차 생활을 해온 초의차 보존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매 수업 시간에 새로운 차를 접해 마시고 다양한 이론 공부를 진행

해 참여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개강식 축사에서 대흥사 총무 스님은 “초의차 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는 대흥사에서 이번 수업이 이루어진 것이 뜻깊고 참여하신 모든 분이 차를 쉽게 접해 불심과 함께 차를 전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한편 이번 수업에는 생활차와 선비차 행다례, 다식 만들기, 제다체험, 규방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차에 대해 친숙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글_전문사범 윤영숙(초의차보존회회장)



전남지부 3월 18일 개강식 가져

재학생은 언택트 수업을 병행해
실력 향상도모

전남지부는 지난 3월 18일 재학생과 사범생 1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1학기 개강식을 했다. 다른 해에 비해 적은 회원들이 등록했지만, 휴학생들이 새롭게 등록하고 홍차 기초반을 동시에 개강했다.

이날 개강식은 케이크 커팅식을 시작으로 자기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서난경 지부장의 홍차 이야기가 이어졌다. 웰컴 티로 마르코 폴로의 헤즐러향이 풍부한 차를 마시며 방학 동안의 차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개강식이 끝난 직후 2023년



의 임원진 선출이 있었는데 총무에 옥원주, 재무에 오옥순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기로 했다.

한편 서난경 지부장은 올해는 교육생이 적은 상황이라 졸업한 선배들과 홍차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재학생은 언택트 수업을 병행하면서 회원들의 실력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행다수업을 실시해 차 우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글_사범교육생 옥원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차 센터 개관

“차 제품 관능평가와 이화학적 특성” 서난경 지부장 발표

지난 3월 24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차 센터 개관식에 100여 명의 차 생산자, 차학회 관계자, 차문화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차 경쟁력 강화 품질기준 설정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산차 품질 현황과 품질기준, 차산업 현장에 대해 논의되



있는데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은 “차 제품 관능평가와 이화학적 특성”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차문화 단체 대표로 축사를 한 조정미 부산지부장은 (사)한국차문화협회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차를 통해 인성 8 덕목을 전하고 규방다

례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협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림부에 “국산차 품질 기준안”을 정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고 국산차 수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글_전문사범 김경자

보성 세계차엑스포 참여

대차품 품평 진행위원 호평받아

전남지부 대학원생들은 지난 5월 5일 보성 세계차엑스포 기간 동안 펼쳐진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에서 소비자 품평 진행위원으로 활약해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날 품평은 협회 대학원생들의 교생실습을 겸하기도 했는데 검은 테이블의 건평대와 흰색테이블의 습평대를 설치했는데, 주최 측에서 흰색테이블보를 미처 준비 못 해 어려움이 처했는데 대학원생들이 기지를 발휘해 흰색 포스터로 대처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박숙희 교육생은 차에 대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품평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 있어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웃었다.

한편 소비자 심사위원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애 순천지부장, 서명주 이사, 조정미 부산지부장이 참여하시고 서난경 지부장은 티 블렌딩대회 심사를 맡아 우리 협회의 위상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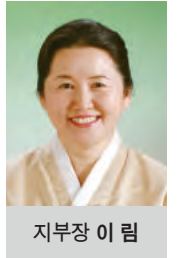
글_대학원교육생 박선희



전 북 지 부

‘부안마실축제’ 차문화 및 생활다례체험 실시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안읍 매창공원 일대



지부장 이 림

전북지부 정읍지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부안마실축제’에서 차문화 및 생활다례체험 행사를 했다. ‘부안마실축제’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안읍 매창공원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부안마실축제’는 차문화를 널리 알리고 생활다례를 직접 실습해 보면서 차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생활다례체험이 많았으며, 차를 마시고 품평을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회원이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차문화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부안마실축제’는 최고의 마실찾기, 체험마실 프로그램, 음식마당, 공연마실존, 잼버리무대, 치유마

실존 등이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충 북 지 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과정 개강하다

2급은 효동원에서, 3급은 충북대학교에서 진행



지부장 박숙희

우리 지부는 2023년 1학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과정 개강식을 우리 교육장 효동원(曉東院)에서 가졌다. 아직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시기이지만 차문화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많은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다.

3급 과정인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진행되고 있다. 10시에는 김영희 충북지부 상당지회장이, 19시에는 김선경 전문사범이 맡아 교육하고 있다.

사범회 정기모임 문을 열다

사범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3월 20일 오후 6시 2023년 사범회의 문을 열었다. 코로나로 정기적인 사범회를 열 수 없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 오랜만에 18명의 사범이 반갑게 모여 청주의 맛집 '만두가'에서 지부장님이 사신 맛있는 저녁을 먹고 미호강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회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 반가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모임을 기대하며 사범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

진천 삼수초 원채희 양 특별상 받다

진천 삼수초등학교 원채희 양이 제26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에서 장려상(특별상)을 받았다.

허윤숙 전문사범의 방과 후 틈새 시간을 이용한 지도로 이룬 성과이기에 그 기쁨과 보람이 매우 크다. 수상 소식으로 경연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사범회 스승의 날 기념식 마련하다

선배 차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5월 15일(월)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사범회는 지부장님께 지부 발전을 위해 20여 년 동안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꽃과 과일을 선물로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념식 후 다신전의 특성과 의의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적인 차생활 속에서 다도의 의미를 깨닫는 다



신전의 의의를 되새기며 故 명예 이사장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선배 차인들의 덕성과 정신을 되짚어보고 사범으로서의 긍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범회 월 2회 지부장님 특강 시간 갖기로 하다

다신전, 고전, 차문화사, 행다법 등 공부

우리 사범회는 4월부터 1, 3주 월요일 지부장님 특강을 우리 교육장 효동원(曉東院)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범교육 동안 공부했던 차문화교육을 전체적으로 되짚어보며 코로나의 긴 공백을 메우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다. 4월 3일(월) 18시 시작으로 다신전을 비롯한 고전, 차문화사, 행다법을 공부한다. 맛있는 차 준비와 수업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지부장님께 감사드린다.



재미와 소통 '차 같이 드시지요' 시작하다

허윤숙 전문사범이 실무 담당



우리 지부는 2023년 행안부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재미와 소통 '차 같이 드시지요'> 교육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천 삼수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후원과 우리 협회 주최로 마련된 사업으로 충북지부에게 부여된 부분은 허윤숙 전문사범(우리 지부 사범회 총무부장)이 실무를 맡았다.

12회 교육을 즐겁게 펼치기 위한 강사는 허윤숙, 정운경, 정미영, 임미희 전문사범과 신승연, 윤기순 사범이 맡아 진행한다.

5월 15일 첫 시간에 참가한 14명의 학생은 차 마시는 시간이 너무 좋다며 열렬한 즐거움을 표했다.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 3월~ 5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부회장 · 박광옥 (500,000원)	서울제2지부 · 박광옥 (300,000원)	충북지부 · 박숙희 (300,000원)
부회장 · 차영민 (500,000원)	인천지부 · 조영아 (300,000원)	전남지부 · 서난경 (300,000원)
서울제1지부 · 이기분 (300,000원)	경남지부 · 황미경 (300,000원)	

특별회비(임원)

부회장 · 이혜자 (1,500,000원)	이사 · 서명주 (1,000,000원)	지부장 · 김태임 (500,000원)
부회장 · 김가영 (1,500,000원)	이사 · 이금숙 (1,000,000원)	지부장 · 이기분 (500,000원)
부회장 · 강순란 (1,500,000원)	이사 · 노영숙 (1,000,000원)	지부장 · 박경숙 (500,000원)
부회장 · 박광옥 (1,500,000원)	이사 · 변명선 (1,000,000원)	지부장 · 황미경 (500,000원)
이사 · 문차남 (1,000,000원)	이사 · 유미현 (1,000,000원)	지부장 · 조영아 (500,000원)
이사 · 최지원 (1,000,000원)	지부장 · 조정미 (1,0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광주지부 · 김경은, 박설미, 김용한

대구경북제1지부 · 김명수, 배문주, 이은숙, 채경숙, 정명순, 도운옥, 정효희, 월제스님, 심순옥, 구명희, 허윤경, 박선민, 위숙희, 김천수, 김태경, 구영희, 이다혜, 이명자, 장명희, 임순희, 강길자, 양영희, 김외숙, 남혜란, 서 규, 김영임, 안경숙, 엄위득, 배태선, 오봉숙, 정미경, 이귀자, 배일분, 김영옥

서울제1지부 · 강유리, 김미경, 김옥희, 박남숙, 박성숙, 박 진, 변정선, 송영아, 신경희, 유성자, 이상길, 이은영, 이은숙, 이정현, 이혜경, 장용자, 전해선, 최점순, 최진숙, 한유자, 황경서, 황은주

서울제2지부 · 송향숙, 손현숙, 허유진, 정상임, 김구환, 정순영, 안난희, 박정향, 안순금, 박지윤, 최지은, 이정옥, 윤채영

부산지부 · 최영희, 김행숙, 김미경, 이수연, 이정옥, 윤영희, 이은숙

전북지부 · 김수진, 박영심, 강길임, 이난희, 소현아, 박점복, 김은순, 김경순, 박철순, 오광주, 김 달, 차명옥, 김정림, 김금남, 김희숙, 최유순, 이영순, 정점순, 육정화, 안지은, 김지인, 손영란, 김미혜, 김종필, 임은혜

충북지부 · 진순자, 김동례, 김미정, 김선경, 김영희, 김윤선, 김은희, 박미경, 서유진, 서지연, 신승연, 오정현, 윤해정, 음혜진, 이원균, 이주현, 임미희, 전근화, 전인숙, 정미식, 정미영, 정운경, 조윤정, 허윤숙, 황인희, 이민애, 권정희

※ 바로잡습니다.

2023년 봄호 차문화 소식지에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 명단(86페이지) 중 진*빈, 김*아, 송*진 회원 사진이 1급 임*희, 정*식, 정*영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3급-제23-963호 진*빈, 3급-제23-964호 김*아, 3급-제23-965호 송*진



3급-제23-963호 진·빈 3급-제23-964호 김·아 3급-제23-965호 송·진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치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3년 3월-2023년 5월 우송로 납부자 명단

3월 통장 입금

경남 · 황미경 / 대구경북제1 · 천미경 / 서울제1 · 허정윤, 조법례, 진혜선, 천경애,
홍길선 / 서울제2 · 윤채영(송희), 정순영, 안순금, 송향숙, 손현숙, 박지윤, 정상
임, 최지은, 김구환, 허유진, 이정옥, 박정향, 문차남, 안난희 / 수원 · 김보경 / 인천
· 김주영, 정계선, 오예주, 이진아, 여경숙 / 전남 · 서명주 / 충북 · 진순자, 음혜진,
박미경, 정미영, 임미희, 김동례, 허윤숙, 전근화, 김선경, 김영희, 전인숙, 정윤경,
조윤정, 황인희, 신승연, 정미식, 서유진, 이원균, 오정연, 김미정, 이주현, 김윤선,
윤해정, 김은희

4월 통장 입금

경남 · 박영미, 박은화, 황은경, 김춘희, 고은희, 김복자, 황정자, 김양임, 김정임,
유미현, 김수연 / 광주 · 나유미, 민선미, 김선미, 정인영, 정주희, 장경래 / 대구경
북제1 · 이진우, 구영희, 허윤경, 채경숙, 박선민, 이은숙, 김태경, 임순희, 정명순,
이명자, 구명희, 이다혜, 위숙희, 도윤옥, 장명희, 배문주(동순), 심순옥, 김천수, 김
명수, 박정호(월제스님), 정효희, 강길자, 김영옥, 배태선, 배일분, 엄위탁, 양영희,
남혜란, 서 규, 이귀자, 정미경, 안경숙, 김외숙, 오봉숙, 김영임 / 부산 · 김미경, 최
영희, 이수린, 김행숙, 이정옥, 이은숙, 윤영희 / 서울 · 박 진, 한유자, 황경서, 송영
아, 김미경, 유성자, 최진숙, 박성숙, 이은영, 신경희(박정우), 이상길, 변정선, 이은
숙, 이정현(종남), 박남숙, 장용자, 황은주, 전혜선, 최점순, 강유리, 이혜경, 김옥희
/ 순천 · 이미란, 주혜란, 나원희, 조혜숙, 김보아, 송예진(예진) / 충북 · 이민애, 권
정희

5월 통장 입금

경남 · 김일규 / 광주 · 김용한, 김경은, 박설미 / 전북 · 정종후, 이주희, 차명옥, 강
길임, 박영심, 김정림, 소현아, 이영순, 박철순, 박점복, 최유순, 김미혜, 김금남, 정
점순, 육정화, 임은혜, 김 달, 안지은, 김종필, 김경순, 김희숙, 김지인, 오광주, 김
은순, 손영란, 이난희 / 충북 · 김신영, 박현주, 박은숙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지 ‘차문화’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고품격 ‘차문화’ 지(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창간 이후 무광고로 발행했던 ‘차문화’지에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계간 차문화

- 판형 : 4x6 배판(188mmx257mm) ▪ 색도 : 올컬러
- 면수 : 100면 내외 ▪ 발행부수 : 5,000부
- 배포 : 차문화 전회원원을 비롯하여 일본 및 전국 차관련 유관 단체

광고 신청 접수

- (사)한국차문화협회 사무국 메일 또는 전화 신청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전화 : 02-719-7816)
- 광고 할 내용과 사진/ 광고필름/ PDF 파일/ JPGA 파일 접수함
- 접수된 광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함

선정 된 광고 게재 혜택

- 회원 및 전국의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광고 효과 기대됨.
- 사업장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 효과 기대 등.

광고 게재 금액 (연간 계약시 1회 무료)

- 표지4 (겉 표지) 1회 1,000,000원 ▪ 내지 1장 (1 페이지) 1회 300,000원
- 표지3 (안 표지) 1회 500,000원 ▪ 내지 ½장 (반 페이지) 1회 200,000원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지 ‘차문화’誌에 ‘차문화’ 회지를 찾고 있습니다.

협회 계간지 ‘차문화’를 창간호(1999년)부터~ 2022년까지 책을 모아 보관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년 월호 책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 배송지 주소 (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1999년 1, 2월호 / 11, 12월호
- 2000년 1, 2월호 / 7, 8월호 / 9, 10월호
- 2001년 3, 4월호 / 5, 6월호 / 7, 8월호 / 9, 10월호
- 2002년 9, 10월호 / 11, 12월호
- 2004년 5, 6월호 / 7, 8월호
- 2007년 7, 8월호

전통수제차의 명가 햇차원이 만듭니다.



수상내역

2001 경상남도 우수벤처 농업상 수상

2003 "햇차원"으로 사명변경

2005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7 유기농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2008 진주 바이오21센터 내 연구실 개소



다매전수자 이경숙님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들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 가루차

한 국 제 다

제품상담: 062)222-2902